

# 환경순환센터 시운전... 쓰레기난 해소되나

### 지난 18일부터 소각시설에 가연성쓰레기 반입도, 11월 말 준공... 하루 최대 500t 처리 계획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인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시운전을 위한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면서 쓰레기 처리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시운전용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18일부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3월 말 매패 시설 준공에 이어 오는 11월 말 소각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시운전은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 시설물만 가동하는 무부하 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을 투입해 소각시설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부하운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일 50t의 가연성 폐기물이 투입될 예정이며,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준공 전까지 조금씩 일정량을 투입해 소각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각용량 최대 500t에 맞춰 가동하면서 배출가스 측정 성능시험 및 신뢰성 운전을 거치게 된다.

18일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135t(정소차량 41대 분량)이다.

가연성 폐기물들은 반입과정에서 마을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역주민들의 입회 하에 감시원들의 성상조사를 거쳤다고 자원순환센터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과 마을주민, 시공사와 현장회의를 추진해 반입 쓰레기의 철저한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일부 가연성 폐기물이 반입 개시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시운전을 위한 가연성 폐기물 반입이 시작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현재 도내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1일 340t으로, 북부·남부소각시설의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1일 191t만 소각 처리되고 있어,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원순환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 준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실태 점검 나선다

### 제주시, 공동주택 공사장 감리원 이행상태 등 점검

속보=제주시가 관내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감리원 배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제주시내 일부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본보(9월 5일자 3면 보도)의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주감리대상의 건축공사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 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현재 제주시 관내 1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 상태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서 본보가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취재결과 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소방 등 관련 전문기술자가 전 공경 또는 해당 공경기간에 반드시 상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적인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별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halla.com

# "추자도의 독특한 맛과 멋 즐겨요"

### 27-29일 참굴비 대축제

제주시 추자면축제추진위원회는 명품 참굴비를 주제로 추자도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제12회 참굴비 대축제'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추자면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한 보통날의 일탈!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탐방'을

슬로건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문화를 담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축제 기간 내내 추자 올레 탐방 이벤트, 삼치·굴비 시식회, 가족 낚시대회, 참조기 경매 체험, 맨손 고기잡기, 갯바당 바룻잡이 등 추자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청정 수산물을 맛보고,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고대로기자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내달 4일 치유의 숲서 행사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10월 4일 치유의 숲(노고록무장애숲)에서 '정령들의 숲 감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의 명품 중 하나인 치유의 숲에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 나아가 숲속노자라는 삶의 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 잊혀져가는 옛 자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에는 주민들이 직접 출연·참여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0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 홈페이지(healing.seogwi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문화 협업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앞으로도 산림휴양·문화서비스 확대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60-3067. 이태윤기자

2019 제주애 빠지다 ⑫ 성산읍 신흥리마을회

# "한데 어우러지는 소통의 시간"

### 원주민-정착주민 잔치 전통 음식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공동체 형성

### "매년 교류의 장 마련해 마을에 활력 도모 기대"

"원주민들과 정착 이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마을회가 원주민들과 정착 이주민들 간에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흥리마을회는 지난 7월 14일 신흥리 옛 마을 분교에서 '지역주민과 정착이주민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원주민과 정착 이주민 등 150여명은 신흥리마을회가 제공한 국수 등 제주 전통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정착 이주민들과 기존 원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특히 신흥리마을회는 이번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정착주민과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에 '혼디밥상 행복한 제주살이'라는 사업을 공모했

고 행사 추진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신흥리마을회는 자부담으로 30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으로 원주민-이주민 한마음 잔치를 개최할 수 있었다. 행사에서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등 원주민과 정착 이주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제주 전통 음식으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 신흥리마을회관에서 만난 강인식 이장은 "마을 내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근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정착 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행복한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장은 "수 년 전부터 마을 내에 지속적으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주민과 정착 이주민들은 대부분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다"며 "이에 신흥리마을회는 원주민들과 정착 이주민 사이에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행사 이후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친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을 방송으로 행사와 관련한 홍보를 진행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 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매년 원주민과 정착이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halla.com



최근 신흥리 옛 마을 분교에서 성산읍 신흥리마을회가 개최한 '지역주민과 정착이주민 한마음 잔치'. 사진=신흥리 제공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월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국비지원** ※회계 입문단계부터 강의합니다※

**세무회계 자격증(FAT1급/전산회계1급) 취득과정**

대상: 직장인/재직자/실업자/구직자/매월1억5천미만사업자  
 교육기간: 10/7 ~ 12/30  
 교육시간: 월, 화, 수, 목(주4회) 19:00~21:50  
 교육내용: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정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a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실생 특요 정식 할 수 있는 요목**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뱅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요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영무득) · 천혜(영무득)  
 한라봉 · 탐나는봉 · 황금향  
 미니향 · 아마나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번이치)  
 하래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010-3055-1885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